

간주린뉴스

경남교육청 내년 예산안 303억 삭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05억원이 삭감됐던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202억원이 살아나 삭감 규모는 303억원이 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6일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에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각종 민간이전 사업비 등을 포함해 202억원을 살리는데 이같이 의결했다.

하지만 미래교육테마파크 건축공사비 50억원, 창의 인성교육 예술강사 지원 분담금 10억원, 장복중추 인조잔디구장 사업비 16억3천900만원 전액, 미추전대척사사업비 15억원, 김해·외곽교육지원센터·이철 123억원 등은 불요불급이나 사업 시기 조정 등의 이유로 삭감됐다.

사각에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됐다. 그러면서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배경이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예산편성 맥락을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규모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교육청 예산안은 13일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순철기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 효용

경남도의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이 효용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설치하는 사업이다.

8월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6억8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7개 시군, 29개 마을에 마을공동체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는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 주체가 돼 창고 지붕이나 마을회관 옥상, 주차장 등 마을 유휴공간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한다.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환경훼손 문제가 제기되거나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시간당 20~50kW 발전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유휴공간에 설치함으로써 환경훼손 우려를 최소화했다.

말밭이 한 농촌지역에 의외지만 들과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대안도 제시됐다. 시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마을주민이 주체가 돼 유류비·비료와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주민복지에 활용하는 구조에서 별다른 손실이 없다.

시간당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연간 3만942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전력을 판매하면 연간 800만~9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익은 경로잔치나 마을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이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한국의 탈춤’, 내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도전

통·고성·진주·고성·진주 등 전통무용 정부, 신청서 내년 유네스코 제출

통영·고성·진주·김해오광대 등 탈을 쓰고 추는 전통무용인 우리나라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문화재청은 6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본회의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20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한국의 탈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탈춤은 가부(歌舞)와 연극 성격을 모두 지녔으며, 부조리한 사회 문제를 해학과 풍자로 공론화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탈춤 관련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중독, 시도무형문화재 4개 중독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양주별산대놀이

(제2호), 통영오광대(제6호), 고성오광대(제7호), 강릉단오제(제13호)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제15호), 분산탈춤(제17호), 동래야류(제18호), 강령탈춤(제34호), 수영야류(제43호), 송파산대놀이(제49호), 은율탈춤(제61호), 하회별신굿탈놀이(제69호), 가산오광대(제73호) 등 13건이 지정됐다.

시도무형문화재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 53호 퇴계원산대놀이, 경북무형문화재 제 42호 예천전탈춤, 경남무형문화재 제 27호 진주오광대, 경남무형문화재 제 37호 김해오광대 등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이전에 등재한 '농악'이나 '줄다리기'처럼 탈춤도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모두 포함해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하며, 등재 여부는 2022년 제17차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ultur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전통 춤(韓 文化)'을 2022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 대상으로 정했다.

'장 담그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한국 국민은 물론 해외 동포들도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장은 한국 음식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만들고 나누는 행위를 통해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전통 장문화 등재 여부는 2024년에 결정된다.

문화재청은 앞서 2010~2012년에 접수된 뒤 서류 중인 무형유산 23건과 지난 9

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모에 응한 무형유산 9건 등 32건을 대상으로 우선 등재 신청 대상자를 골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정기 회의에서 이른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알려진 대표목록, 위기에 처한 유산을 모은 긴급보존목록, 무형유산 보호 경험을 정리한 모범사례 등재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지난해 '남해가 공동'으로 등재한 '서해, 한국의 전통 레슬링'까지 대표목록 20건을 보유 중이다. 중국, 일본 다음으로 유산이 많아 2년에 한 건씩만 등재 신청이 가능하다.

'진주시' 무형유산위원회는 석가모니 탄생 축하를 기념하는 불교행사인 '연등회(燃燈會)'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김승삼기자·박정



경남도의 지역경제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현지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설명받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 의원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방문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역경제연구회(회장 김진욱 의원)가 지난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했다.

현지 방문은 지난 7월, 25년 만에 준공한 동동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격려하기 위해 지역경제연구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현지방문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청 비전관을 방문하여 홍보영상 시청과 VR체험 등을 실시하고, 청장 등 구역청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사항 등을 토론했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총 사업비 17조4241억원에 투자하여, 부지 51.1㎢(57개 지역, 23개 지구)에 대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환경 최적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본부 중심의 조직을 업무기능별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시도 경계를 넘어 개발과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경제연구회는 제11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지역개발발전 정책연구회와 미래지향적 첨단 제조로 자속가능한 경남경제 건을 위하여 지난해 9월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진주시의회 통과한 조례안 내용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제2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도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주시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만 남게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차 본회의에서 34개의 각종 안건이 통과됐다.

안건 중에는 민주당 윤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건설과)',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생학습원)' 등 눈에 띄는 조례들이 몇 개 있다.

윤갑수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은 구조영위를 하다가 의사가자가 되는 범위를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한 자로 확대해 대상자의 범위를 넓혔다. 윤갑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 사용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의사사자 지원범위를 신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신설 및 폐합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일치시키고 지원 사업을 신설해 의사사자들의 송고한 뜻을 기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 직적행정 운영조례안(행정과)'은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직적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조례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그 부모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의 범위에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는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낮추고, 지역 민간건설사업 인-안까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진주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희성기자

내년 총선 도내 선거비용 평균 1억9800여만원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위해 평균 1억98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김순철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16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도내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9800여만원으로, 2016년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평균 900여만원 늘었다. 김순철기자

분묘개장공고 (2차)
행사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합동로 112
문의처: 창원시 행정복지센터 (055-250-1111)
공고기간: 2019.12.09 ~ 2019.12.13

합천군계회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합천군계회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한
합천군계회시설 지정 및 실시계획을 위하여 「국
토이용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 제3호, 제4호
에 따라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천군계회시설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운영의 소관 고속도로
고속도로 제1호선 양양-함양간 건설사업 원안부호에
고속도로 제1호선 양양-함양간 건설사업 원안부호
고속도로 제1호선 양양-함양간 건설사업 원안부호
고속도로 제1호선 양양-함양간 건설사업 원안부호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창원시정
1. 분묘개장공고: 2019. 12. 6.(수) 1. 0(수) 18:00까지
2. 분묘개장공고: 2019. 12. 6.(수) 1. 0(수) 18:00까지
3. 분묘개장공고: 2019. 12. 6.(수) 1. 0(수) 18:00까지

합천군계회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합천군계회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한
합천군계회시설 지정 및 실시계획을 위하여 「국
토이용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 제3호, 제4호
에 따라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정운영의 소관 고속도로
고속도로 제1호선 양양-함양간 건설사업 원안부호
고속도로 제1호선 양양-함양간 건설사업 원안부호
고속도로 제1호선 양양-함양간 건설사업 원안부호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